



“영.알.못 미국에 가다!”

참가자 소개



- 참여과정 : 2018년 미국 IT엔지니어 양성과정
- 근무업체 : EVE HAIR, INC
- 근무기간 : 2019.03.11 - 2020.03.10
- 성 명 : 김OO
- 전 공 : 컴퓨터공학전공

K-Move스쿨을 하게 된 계기

별 볼일 없었던 저의 스펙에 한 줄이라도 추가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토익을 준비한 것도 없고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 하나 없던 제가 K-Move스쿨을 통해서 해외인턴이라는 스펙이라도 들고 있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해외취업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경험과 스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연수를 하면서 느낀 점

기본적인 회화나 아무 자격증이 없던 저는 K-Move스쿨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영어로 자기소개 정도는 막힘없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수업이 소중했고 뭐 하나 흘려둘 게 없는 수업이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한 것이 인턴으로 일하면서 적용할 수 있었고 영어 인터뷰를 위한 영어 수업과 공부들이 현지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후배를 만날 수 있어 좋은 인연도 맺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만큼은 이 수업들을 통하여 처음으로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느낌을 받았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IT반 첫 만남!



원어민 강사와의 마지막 회식

단점을 극복하다

영어공부는 대학교에 와서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공부를 하지 않았고 싫었습니다. 전공에서도 딱히 좋은 성적을 받지도 못하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평범했던 저에게는 해외 취업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사실, 간절한 것보다 졸업 후 취업 걱정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걱정과 간절함에 저는 이전보다 세배 이상은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방학에 나와 아침부터 오후까지 8시간씩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와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고 개강 후 본 전공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4시간씩 K-Move스쿨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몇 개월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하나 버티지 못하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제대로 읽을 줄 몰랐던 상황이었기에 발음 나는 대로 한글을 다 적으면서 읽기, 듣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공부하면서 정말 감사함을 믿고 시키는 것들을 하니 정말 말도 안되게 성장하여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알.못 드디어 미국에 가다!



LAS VEGAS

몇 개월간의 노력 끝에 영어 실력 향상, 자격증 취득과 대기업 스펙까지 얻고 3월 7일 출국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머물 집을 구하고 유심구매, 통장개설, SSN 발급까지 어려운 과정들을 끝내고 나서 차량도 구매하여 등록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대부분 한인에게서 이루어졌다. 영어를 많이 공부해도 현지인들이 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2~3번 되묻는 경험을 할때면 자신감이 떨어져 한인을 찾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또한 미국에서 산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는 외국인을 만나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두려워 하지 않고, 보다 나의 미래가 점차 뚜렷해져 가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 또한 살아가며 많은 문제점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거라 생각한다.

실무에서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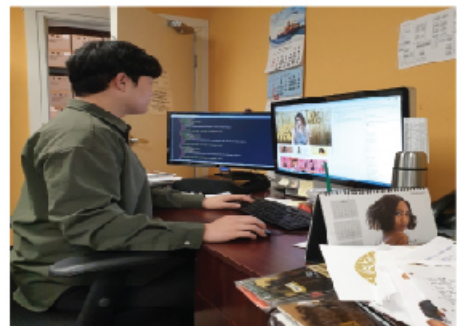
교수님 대부분과 선배들이 말했다. 현장에 가면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 새롭게 배워야 한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웹 개발을 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Server설치, Network구축 등 정말 힘든 것들도 경험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학교와 연수를 통해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자신감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사수가 25년의 경력자분이셔서 나와서 실력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다.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엄청났고 그러한 사수 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인턴으로 경험하며 사회생활이 어떤 것인지, 또한 IT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양한 기술까지 배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의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코드,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 뭔가 내가 상상했던 것들과는 많이 달랐다.

오히려 한국이 좀 더 개방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많다고 느낄 정도 였다. 그리고, TIPPE에 명시된 대로 커리큘럼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 부분은 기대를 내려놓고 오면 좋을 것 같다. 그냥 단순하게 미국에서 직장생활이 어떤 것인지 느끼고 여행을 많이 한다면 K-Move스쿨은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정말 다양한 상황과 빈곤한 환경에 놓이겠지만 극복한다면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EVE HAIR 회사전경



업무 모습



“모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연수생 소개



- 참여과정 : 2018년 미국 IT엔지니어 양성과정
- 근무업체 : Fine Tech Win
- 근무기간 : 2019.03.29. - 2020.03.28.
- 성 명 : 유OO
- 전 공 : 전자공학전공

K-Move스쿨을 하게 된 계기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모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나의 삶의 가치관이며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도전정신을 지니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제품 박람회인 CES2018에 참관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박람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컸고 엔지니어로서 세계에 서고 싶은 꿈을 꾸는 계기가 됐다. 그러는 도중 K-Move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 더 큰 환경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영어공부는 물론 인턴 경험과 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K-Move스쿨 연수를 통해



회사 전경

K-Move스쿨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학생들이 자격증 및 역량을 키워 해외취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K-Move스쿨 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신경을 써 주신다. 그중 영어인터뷰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영어 이력서 작성 및 첨삭, 가상 면접 인터뷰 등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영어수업은 미국 드라마와 CNN 기사를 통해 재미있게 배웠다. 실제로 배웠던 문장들이나 단어들 이 현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유용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발음을 교정하고 일상 회화를 중심으로 공부했다.

K-Move스쿨 수업이 끝나갈 시기에 다들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다. 나는 처음부터 잡매칭이 잘 풀리지 않았다. 여러 회사에 지원도 많이 하고 그만큼 떨어지기도 했다. 회사에 잘 보이려고 나를 꾸며서 대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나에게 대해서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과 열정이 있으면 어디든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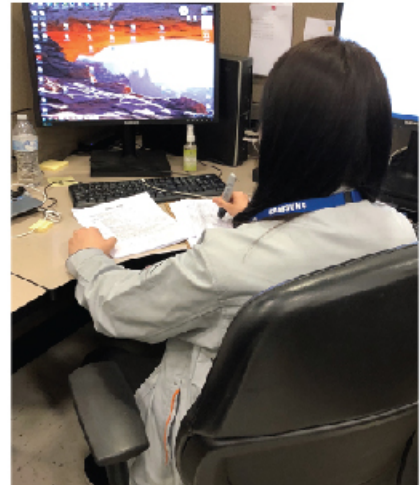
마침내 지원한 회사에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봤고 합격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비자 준비만 남았을 때 합격한 회사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통보를 했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채용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 아마 그때가 연수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던 중 지금 취직 한 회사와 연결이되어 미국으로 올 수 있었다.

불안함과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전공이 맞는 회사를 잘 찾아서 가길 바란다.

실무에 나가서 느낀점

자격증들은 각자가 소속된 분야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가진다. 이 중에는 취업에 유리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취득하는 게 좋다. 필요없는 스펙은 과감하게 버리고 영어에 집중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어느 분야나 컴퓨터를 사용 않는 곳이 없으며 자료 정리, 보고서 및 메일 작성 같은 부분에 많이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Excel, Power point, Word가 가장 많이 쓰인다. 특히, Excel 같은 경우에는 셀 만들기, 표 관리, 차트 만들기, 수식 및 함수를 적용하는 게 많이 쓰인다. 잘 활용한다면 업무에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그렇다고 MOS자격증을 굳이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내가 인턴십을 한 회사는 텍사스에 위치한 총 직원 500여명 규모의 삼성협력 휴대폰 수리 및 부품 관리 회사이다. 그곳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Production management로 전체공정의 생산 및 관리를 감독한다. 전반적인 업무는 핸드폰 repair/refurbish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 프로덕션에 필요한 부품 및 엔지니어링 tool 주문 관리, 미국 내 주류 이동 통신회사(Verizon, AT&T, T-mobile 등)와의 업무협력, Quality Control, RF 테스트/컨트롤, 장비관리 지원업무 등이 있으며 그 외, 프로덕션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지원을 한다.



업무모습



회사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직장 동료들과의 추억이다. 친구들은 회사-집-회사-집 뿐이던 나의 일상에서 유일한 안식처였다. 일이 힘들어도 서로 웃으며 격려해주고, 도시락도 챙겨 주고 많은 힘이 되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못해 의사소통에 오해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이해해 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도와줬다. 차츰 나아진 영어 실력에 많이 좋아졌으며 다들 칭찬해 주었을 때가 가장 뿌듯했다. 친구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왔다. 서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생활방식은 다르지만 배려하고 존중해주며 잘 어울렸다.

미국 인턴십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문화생활

미국 인턴십을 해외에 가서 돈 벌면서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된다. 학교에 다니는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므로 책임감도 필요하고 많은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미국에 와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내일은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해결해야 한다. 지원 전부터 막막하고 많이 걱정되었지만 미국 인턴십을 해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준비하면 된다. 경험 전에는 두렵고 무섭지만 현지에 와보면 뭐든 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미국 와서 영어 못한다고 겁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친구도 사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부딪혀 봐야한다. 영어가 서툴러도 대부분 이해해주고 본인의 의사만 잘 전달된다면 못할게 없다.

마지막으로 절대 아프지 말 것. 나는 미국 인턴십 증료를 앞두고 많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방문했다. 미국에 오면서 제일 큰 목표 중 하나가 건강이었지만, 한국에서도 겪지 않은 일들을 미국에서 겪었다. 그리고 보험이 생각보다 커비가 되질 않는다.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었고, 심지어 약값 또한 비싸다. 웬만하면 병원 가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미국은 의료서비스가 한국보다 좋질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에게 맞는 상비약을 잘 챙겨서 오길 바란다.



“늦지 않았으니 꿈을 위해 움직이자”

연수생 소개



- 참여과정 : 2018년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
- 근무업체 : IBI-NET
- 근무기간 : 2019.08.01. - 현재
- 성 명 : 신OO
- 전 공 : 소프트웨어공학전공

K-Move스쿨을 하게 된 계기

군대를 제대하고 장학금, 전공 학점, 공모전 등 가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달려왔다. 하지만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며, 진로에 방향하던 중 K-Move스쿨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가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어릴 적부터 계속 실천으로 옮기진 못했지만, '제2외국어를 완벽히 구사하고 싶다!' 라는 뜻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K-Move스쿨은 국내에서 일본어, 전공관련 국내연수 후 일본 현지에서 국외연수를 받으며 해외취업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당시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나에게 아주 큰 도전이었다. 이 기회를 잡아 제2외국어에 대한 갈망과 타국에서 전공을 살려 기술자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국내연수가 시작되고 일본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앞이 정말 막막했다. 하지만 다같이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같이 힘내서 스테디도 하며 재밌고, 빠르게 언어를 익힐 수 있었다. 하지만 국외연수가 시작되고, 나는 큰 벽에 부딪혔다. 수업과 다르게 직접 현지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래 알고 있던 단어, 문장도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많은 부족한 점을 느끼고 일본인이 주 고객인 한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면 어찌지 하고 걱정이 앞섰지만, 사장님께서 '손님이 하는 말 못 알아들으면 그대로 주방에 와서 물어봐' 라고 말씀하신 사장님의 배려로 나는 항상 작은 수첩과 펜을 쥐고 다녔다. 주문을 받을 때도 손님이 하는 말 그대로 수첩에 한국말로 써서 주방에 들어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나와서 주문 받는 형식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내가 손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해야만 하는 말들을 직접 집에서 찾아서 공부하고, 외우고 다음 날 손님에게 그 문장들을 사용할 때 손님이 알아 듣고 대화를 이어 나가거나 칭찬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며 일본어 공부를 더욱 재밌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K-Move스쿨 국내 연수



K-Move스쿨 국외 연수



취업 준비는 국외에서 진행한 K-Move스쿨 커리큘럼에 따랐다. 한국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선생님들도 초청해,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면접은 전공지식,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선생님들께서 입 모아 말씀하신 것이 일본어 실력,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셨다. 한국도 물론이지만, 일본에서는 더더욱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다. 그리고 면접에서 해외 취업준비생에게 면접관이 '일본에서 왜 취업을 하려고 생각했나?' 또는 '얼마나 일본에서 일할 생각이나?' 등의 단골 질문들은 해외 취업준비생의 일본어 실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부족한 일본어로 버벅거리며 말하는 거창한 이유보다는 분위기를 풀며 재밌게 풀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K-Move스쿨 수업을 이수하기 전보단 물론 일본어 실력이 많이 늘었지만, 취업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나의 장점을 이용해서 면접 때 항상 웃으면서, 꼭 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하려했다.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던 나의 일본에서의 첫 면접에서 홀로 합격해 지금의 회사 (IBIN)에 있다. 후에 친해진 회사면접 담당자에게 어떤 면 때문에 나만 뽑았느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회사담당자는 '일본어는 부족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보였고, 같이 일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다. 이런 것처럼 자신이 일본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면서, 준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배는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회사소개

IBI-NET은 사원의 성장이 회사의 발전과 비전으로 이어지는 기업 정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거래처 기업은 약 3,000개사가 있어 자기 계발에 좋고, 안정된 생활, 최고의 복지, 각종 수당까지 직원들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인재의 성장을 돕고 직원복지를 개선하는데 가치를 두는 회사는 구직자에게도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IBI-NET을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다년간의 Knowledge Management의 기획/제안의 경험을 통해서 통합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다. 인간경영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비넷에 있어서, 최대의 재산은 인재라고 항상 말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자의 성장이 회사의 거듭되는 발전과 비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며 움직이고 있다.

요즘엔 한일관계 경질로 친구들과 가족들의 많은 걱정과, 이런저런 많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오면 그렇지도 않다. 서로 위해주고, 배려하며 웃으며 다 같이 즐겁게 지내고 있다. 또한, 요즘은 많은 사람이 도전하기 무서워하고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있다면 곧바로 도전해보았으면 좋겠다.



업무 모습



현장 첫 회식



“꿈을 꿈으로만 두지 말고 현실로”

연수생 소개



- 참여과정 : 2018년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
- 근무업체 : CAL
- 근무기간 : 2019.08.26. - 현재
- 성 명 : 조OO
- 전 공 : 정보통신공학전공(모바일트랙)

일본 취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

IT전문가는 되고 싶었지만, 일본에서 프로그래머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3학년이 끝나갈 무렵 일본 취업을 하고 싶게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학교의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일본 대학과의 학술교류 활동이었습니다. 학술교류 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 신기한지 많은 현지인이 관심을 가지며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게 너무 인상이 깊었고, 아끼 자기하고 예쁜 건물들이나 길들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미 일본 취업을 마음 먹고 있던 친구에게 일본의 IT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게 현재 제가 일본에서 일하게 된 첫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일본 교환 학생들과의 교류 수업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저희 학교로 꽤 많은 교환학생이 왔습니다. K-Move스쿨 담당 교수님이신 김태용 교수님께서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수업도 교수님께서 직접 지도해주셨습니다. 수업을 함께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산 여행지에 놀러 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일본어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일본어를 빨리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도쿄로 돌아간 일본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도쿄로 여행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계기는 K-Move스쿨 참가였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K-Move스쿨에 참가하게 되었고, 트랙2 과정으로 오사카에서 국외연수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국외연수를 수료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너무 즐겁게 했고, 연수도 현지 기업탐방, 문화교류체험 등의 시간이 많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카페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은 낭만이 있었던 저였기에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해외 연수 중 JLPT N2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규슈 공대 학술 교류 활동



K-Move스쿨 국내연수



K-Move스쿨 국외연수차 출국

취업준비, 우선 하고 보자!!

제가 일본 취업을 결심했을 때 저의 일본어 능력은 중학생 때 반년 정도 일본어 수업을 들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과 별다른 것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 15일이 지나고 바로 면접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일본 취업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무작정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말은 전부 하고 나오자!' 라는 심정으로 첫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면접을 본 회사는 대표님이 한국인이었고, 직원은 대부분이 일본인인 IT기업이었습니다. 제가 듣지 못하는 걸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회사소개는 한국어로 해주시며 면접 질문은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기소개 외에는 한마디 하는데 몇 분씩 걸렸지만, 그 회사 대표님이 "제발 그냥 시간 없으니깐 한국어로 합시다" 라고 하기 전까지 천천히 제가 준비해 온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졸업과 취업비자 취득까지 반년 이상 남았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합격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어도 못했고, 컴퓨터공학부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도 아직 실기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기에 합격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대본을 준비하고 외웠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대! 좀 더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K-Move스쿨 연수를 받으며 처음으로 일본기업 면접을 보았습니다. 일본어로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고, 일본어를 공부한 지 다섯 달이 좀 지나서 느리지만 정말 간단한 회화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K-Move스쿨 연수를 마치고 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정되었고 현재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CAL주식 회사는 IT인재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적절한 IT엔지니어를 파견해주는 SI업체입니다. IT프리랜서가 목표였던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K-Move스쿨 국외 연수



일본식 문화체험



일본 대학생 교류활동

취업 후부터 현재의 일상까지

우리 회사는 현재 1,200명의 사원 중 200명이 한국인이며,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삿포로 등 각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꽤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26일에 입사하여 오사카에서 신입 교육을 받고 현재는 도쿄지사에서 NTT라는 일본 3대 통신 회사라 불리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같은 회사로 파견을 온 대학 동기, 함께 K-Move스쿨에 참가한 동기,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낸 교환학생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소 일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차가운 도쿄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지원금으로 만족스러운 집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동기들과



K-Move스쿨 국외연수 출국